

홈플러스 영업 재개...“다시 문 열어 다행이에요”

전남광주 4개 점포 재개장...고객 발걸음 이어져
한우 할인에 ‘오픈런’...카트 행렬에 계산대 북적

한 달 가까이 멈춰 있던 전남광주지역 홈플러스 매장에 다시 불이 켜졌다. 13일 오전 홈플러스 동광주점. 문이 열리기 전부터 출입구 주변에는 손수레와 장바구니를 든 시민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다. 가족과 함께 나온 고객부터 오랜만에 찾은 매장의 모습을 찬찬히 둘러보는 노년층까지 다양한 모습이 눈에 띄었다. 개장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출입구 앞 대기 행렬도 길어졌다. 오전 10시 자동문이 열리자 기다리던 고객들이 차례로 매장 안으로 들어섰다. 카트 바퀴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와 고객들의 발걸음이 한동안 멈춰 있던 매장 안을 채우기 시작했다. 고객들은 식품 코너를 비롯해 필요한 물건을 찾아 발걸음 옮겼고 일부는 매장 곳곳을 둘러보며 휴업 전과 달라진 모습을 살폈다. 이날 가장 많은 고객이 몰린 곳은 축산

코너였다. 재개장을 기념해 진행된 한우 할인행사에 고객들이 집중되면서 준비된 물량은 빠르게 판매됐다. 매장 곳곳에서는 직원들의 움직임도 분주했다. 상품을 진열하고 진열 상태를 정리하는 한편, 고객들의 문의에 응대하는 직원들의 모습에서 재개장 첫날의 긴장감이 느껴졌다. 계산대 주변에도 고객들이 몰리면서 한때 대기 줄이 길게 늘어선 모습이 나타났다. 그러나 매장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또 다른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사람의 발길은 돌아왔지만, 상품이 돌아오지 않은 매대가 곳곳에 남아 있었다. 상품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진열대에는 빈 공간이 드러났고, 넓은 매대 한쪽에는 몇 개의 상품만 띄엄띄엄 놓여 있기도 했다.



13일 전국 67개 홈플러스 매장이 재개장한 가운데 전남광주동광주점 부근에 위치한 홈플러스 동광주점에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고객들은 진열대 앞에서 원하는 상품을 찾기 위해 한동안 주변을 살폈다. 상품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다른 코너로 발걸음 돌리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다시 불이 켜지고 고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매장 곳곳에 남겨진 빈자리는 임시휴업 기간의 흔적을 고스

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두암동에 거주하는 60대 정모씨는 “문을 닫았을 때는 동네에서 자주 가던 마트가 사라지는 것 같아 아쉬웠다”며 “다시 문을 열어 반갑지만 예전처럼 모든 것이 갖춰지려면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할인행사 때문에 찾아왔지만 앞으로로도 계속 이용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며 “마트가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직원들도 일자리를 지킬 수 있고 소비자들도 안심하고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많은 분들의 성원

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감사드린다”며 “완전한 정상화와 새로운 도약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홈플러스는 임시휴업에 들어갔던 전국 67개 점포의 영업을 이날부터 재개했다. 앞서 재개장 대상 점포들은 지난 7일부터 가오픈을 진행하며 12일까지 최종 운영 점검과 보안 작업을 거쳤다. 전남광주지역에서는 광주 하남점과 동광주점, 전남 광양점과 순천점 등 4개 점포가 영업 재개 대상에 포함됐다. 홈플러스는 고객들의 발길을 되돌리기 위해 재개장과 함께 대규모 할인행사도 마련했다. 13일부터 4일간 마이홈플러스 회원을 대상으로 한우 전 품목을 최대 50% 할인하고, 14일부터 사흘간은 당당후라이드 치킨을 50% 할인 판매한다. 한돈 삼겹살과 목심 등 육류를 비롯해 수산물과 과일, 과자·음료, 델리·베이커리 등 주요 먹거리를 품목별 할인과 1+1 행사가 진행된다. 재개장 행사는 8월 말까지 점포 휴무일을 제외하고 이어진다. 윤희성 기자 yu1404@gwangnam.co.kr

전남광주 출생아 증가세...광주신세계 ‘베이비 페어’

스토케·부가부 등 인기 브랜드 할인·리워드 혜택

전남광주지역 출생아 수가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광주신세계가 출산·육아 수요를 겨냥한 대규모 베이비 페어를 마련한다. 13일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14일부터 30일까지 본관 6층에서 ‘2026 베이비 페어’를 열고 유모차와 영유아 의류 등 다양한 출산·육아용품 선보인다. 최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5월 인구동향’을 보면 지난 5월 광주지역 출생아 수는 565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514명보다 9.9% 증가했다. 전남지역도 같은 기간 840명이 태어나 지난해 565명보다 16.5% 늘었다. 올해 1~5월 누적 출생아 수 역시 광주·전남지역에서 증가세가 이어졌다.

광주는 313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693명보다 1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신세계는 이 같은 출생아 증가 흐름에 맞춰 주요 육아용품 브랜드를 한자리에 만나볼 수 있도록 행사를 구성했다. 브랜드별 할인과 사은품, 구매 리워드 등을 마련해 예비 부모와 영유아 자녀를 둔 고객들의 발길을 끌어모으는 계획이다. 노르웨이 프리미엄 유아용품 브랜드 ‘스토케’는 대표 제품인 트립트랩의 신규 색상 ‘캐시미어 그레이’를 선보인다. 기존 인기 색상인 내추럴과 화이트 위시에 이어 선택지를 확대했다. 스토케는 오는 23일까지 트립트랩과 트



부가부 매장에서 직원이 고객에게 부가부 유모차의 장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립트랩 뉴본, 베이비 세트, 트레이를 함께 구매하는 고객에게 영유아 목욕용품 ‘플렉시바스’를 증정한다. ‘부가부’도 베이비 페어 기간 동안 구매 혜택을 강화한다. 100만원 또는 200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구매 금액에 따라 5% 고객 리워드를 제공한다.

아동 패션 브랜드들도 행사에 참여한다. ‘타미힐피거 키즈’는 2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필통을 증정하고, ‘마리떼 키즈’는 10만원·20만원 이상 구매 시 각각 1만원·2만원을 할인한다. ‘에프와’와 ‘압소바’는 각각 30%와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광주신세계 본관 지하 1층 행사장에서는 ‘코베 베이비 페어’도 연계해 진행된다.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에그’, ‘오이스터’ 등 광주신세계에 입점하지 않은 브랜드 25개가 참여한다. 코베 베이비 페어 참여 브랜드들은 구매 고객에게 7% 리워드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윤철 광주신세계 패션팀장은 “예비 부모들이 출산과 육아에 필요한 다양한 상품을 한자리에서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행사를 마련했다”며 “할인과 사은품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윤희성 기자 yu1404@gwangnam.co.kr

배달·오픈마켓 수수료 정조준...공정위 실태조사

입점업체 피해·분쟁 경험 조사

배달·오픈마켓·숙박 분야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실태를 파악하고 수수료와 광고비 등 각종 비용 부담을 점검하기 위한 정부 조사가 시작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부터 ‘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현황 및 불공정 거래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연구용역은 오는 11월 12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된다. 이번 조사는 배달·오픈마켓·숙박 등 플랫폼 관련 민원이 집중되는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 구조와 거래 현황을 살펴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플랫폼에 입점한 사업자들이 실제 현장에서 겪는 부담과 피해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진행한다.

조사 항목은 수수료 등 비용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비롯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사례, 분쟁 발생 시 조정 및 해결 경험 등이다. 공정위는 입점업체 조사와 함께 주요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수료와 광고비의 구조 및 현황을 비롯해 플랫폼 거래 운영 실태, 데이터 관련 정책과 기준, 분쟁 발생 시 처리 절차 등을 들여다본다. 입점업체와 플랫폼 사업자를 동시에 조사해 양측의 거래 실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플랫폼 시장에서 실제로 어떤 비용과 거래 관행이 존재하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하겠다는 취지다. 공정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은 2021년 103건에서 2025년 445건으로 늘었다. 4년 만에 약 330% 증가한 규모다. 윤희성 기자

1332 신고전화 국번없이

실손보험사기 집중신고 기간

2026. 1. 12. (월) ~ 10. 31. (토)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병원관계자 5,000만원 · 브로커 3,000만원 · 환자 1,000만원

보험사기 유인·알선 권유 행위

미용 성형시술 후 허위청구 행위

진료비 영수증 조작기 행위

허위 입·통원 행위

경찰청

금8검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